제 5회『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_레오 스트라우스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4명
2020년 5월 24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유인문학회 사무실

(4) 실증주의는 필연적으로 역사주의로 변모하게 된다. 자연과학을 모델로 하는 연구 성향 때문에 사회과학은 예를 들어 20세기 중반의 미국 또는 좀 더 일반적으로 근대 서구사회의 여러 특징들을 인간사회의 본질적인 성격으로 간주하는 잘못을 범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사회과학은 현재와 과거의 다른 문화들에 대한 연구하는 <범문화적 연구>에 종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화들의 의미를 놓치게 된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은 다른 문화들을 근대 서구사회에 기원한 개념구조를 통해서 해석하며, 그러한 개념구조란 그러한 특정 사회를 반영하거나 기꺼해야 그러한 특정사회에나 적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역사주의로서 역사에 어떠한 법칙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규칙 외에 모든 것을 놓치게 된다.

과학이 비과학적인 과거의 지식들의 누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라고 기존의 지식들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 과학과 마찬가지로 문화 또한 그러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제사문화는 가난했던 시절 제사 때라도 풍족하게 먹기 위해 생겨났던 문화적 배경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생겨난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서양의 시각에서 그저 비과학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문화라고 그 문화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다.

사회 과학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역사적 이해이다. 역사적 이해야말로 진실로 사회에 대한 경험 과학적 연구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이해라는 과업의 무한함을 고려하게 되면 사람들은 역사적 이해가 과연 사회에 대한 과학적 대체할 수 있는지 회의하기 시작한다. 더구나 사회과학은 사회현상들에 대한 참 명제들의 집합체라고 말해지고 있

다.

말을 하는 순간 화자의 의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과학이 사회현상들에 대한 참 명제들이란 것은 틀렸다.

그러한 명제들이란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이다. 무엇이 객관적으로 유효한 답변인가 하는 것은 논리학의 법칙이나 원리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들은 관심의 방향이 어디냐에 의존하며, 이에 따라 가치 즉 주관적 원칙들이 결정된다. 그렇다면 기본 개념들을 제공하는 것은 논리학이 아니라 관심의 방향인 것이다.

질문 자체에는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설문조사 같은 경우, 질문 자체에 지나친 가치들을 담고 되면 설문조사로서 가치를 잃게 된다.

관심의 방향이란 자신의 가치를 의미한다.

사회과학에서 주관적 요소들과 객관적 요소들을 서로 떼어놓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객관적 답변은 주관적인 질문으로부터 의미를 얻는 것이다.

아무리 객관적 답변이라 할지라도 이미 주관적인 것이다.

우리는 기존의 사회과학 속에 구현된 가치들을 당사자인 사회과학이 속한 사회 즉 역사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해야만 할 것이다. 사회과학은 역사적 연구들에 의해 대체될뿐더러 사회과학 자체가 <역사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사회과학이 역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 역사가 사회과학을 규정한다.

사회과학을 하나의 역사적 현상으로 성찰할 때 그것은 사회과학의 그리고 궁극적으로 근대과학 전체의 상대화에 이르게 한다. 결과적으로 근대과학은 사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해 방식보다 원칙적으로 우월하지 않은, 역사적으로 상대적인 방식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게 된 것이다.

사회과학이란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 규칙을 따라 간다면 사회과학은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어떠한 것도 귀중하거나
가치가 있다고 정할 수 없게 된다.

그 예로 소련의 클립 이야기가 있다. 소련의 공산주의 하에서 클립을 만들 때, 도저히 사무용으로 쓸 수 없는 거대한 클립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공산당은 사용자의 의도나 욕구 관계없이 오직 그들의 규칙대로만 클립을 만들었고 그 때문에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클립을 만들게 되었다.

성장의 정점에 이른 역사주의는 다름과 같은 점들에서 실증주의와 구분된다. (1) 역사주의는 사실과 가치의 구분을 포기한다. 왜냐하면 모든 이해는 비록 이론적은 것일지라도 특정한 평가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2) 역사주의는 근대과학의 권위적 성격을 부인한다. 근대과학이란 단지 인간이 이 세계 속에서 사유하는 방식의 여러 형태 가운데 하나로 보일 뿐이다. (3) 역사주의는 역사의 과정을 근본적으로 진보적인 것으로 또는 좀 더 일반적으로 기술하여 이성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거부한다.

(4) 역사주의는 비인간으로부터 인간에로의 진화가 인간의 인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진화론의 적실성을 부인한다. **역사주의는 사회와 인간들 생각의 본질적인 역사적 성격 때문에 좋은 사회, 다시 말해서 가장 최선의 사회가 무엇이냐의 질문 자체를 거부한다.** 좋은 사회가 무엇이냐의 질문을 제기할 본질적인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질문은 원칙적으로 인간과 공존할 수 없으며, 그것의 가능성 자체가 운명을 신비적으로 처방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역사주의의 주장은 사회가 알아서 진화할 텐데 '더 좋고, 뭐가 더 나은지'에 대한 것들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유사한 관점의 과학중심주의는 종국에 과학마저 폐기하게 된다.

1933년 가장 극단적인 역사주의자로 하여금 운명에 대한 처방으로 자신의 민족 가운데 가장 지혜롭지 못하고 가장 중용적이지 못한 집단이 가장 지혜롭지 못하고 가장 중용적이지 못한 정신적 상태에서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복종 혹은 더 나아가 환영함과 동시에 스스로는 지혜와 중용을 부르짖게 만들었던 것이다. 1933년의 그 최대의 사건은 오히려 인간은 결코 좋은 사회에 대한 질문을 포기할 수 없으며, 인간은 또한 역사 또는 자신의 이성이 아닌 다른 힘에 경의를 표한다고 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 해명하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증명 - 만일 증명이 필요하다면 - 하고 있다.

1933년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지막 투표라 불리는 히틀러 나치당의 승리가 있었다.